
KDI-Munk School-TSF-SIIS 공동주최 상해 국제회의의 출장 보고서

목 차

- ① 출장 개요
 - ② 출장자 현지 일정
 - ③ 출장 주요 내용 정리
 - ① 국제회의 주요 내용
 - ② 국제회의정상회의저널 협의 관련사항
- 별첨. Rapporteur's Report

2012. 10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1. 추진배경	3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5
② 출장지 및 기간	5
③ 출장자 명단	5
3. 출장일정	
① 출장자 주요일정	7
4. 출장 주요 내용 정리	
① 국제회의 주요내용	9
② 국제 정상회의 저널 (Global Summitry Journal) 협의	12

- KDI, Munk School, 스탠리 재단 (The Stanley Foundation, TSF) 및 상해 국제문제연구원(SIIS)은 공동연구사업을 진행, ‘G20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대와 블록(shifting coalitions and potential blocs for Asian and Pacific leadership in the G20)’ 국제회의를 추진*

* 지난 8월, KDI와 Munk School은 Letter of Understanding 체결을 통하여 본 공동연구사업의 범위와 협력내용을 규정하였음. (LOU 원문 별첨)

- 본 국제회의는 G20에 초점을 맞추어 아태지역의 번영과 안보 및 안정성과 관련해 양자 및 다자 주요 협력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지난 일곱 차례의 G20 정상회담과 G20이 국제 협력관계 증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현 G20 체제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G20은 21세기 국제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현재까지 G20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G20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국가 간 연대방안에 대해 회원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본 국제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중-일 협력관계, 기존 G7 국가들과 BRICS 국가들의 영향력 등을 살펴본 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으로서의 G20 및 기타 협력포럼의 효과성에 관해 면밀히 논의할 예정
- 본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토론주제는 G20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Global Summitry E-Journal(GSJ) 출판의 주제 선정에 영향
 - 국제 정상회의 저널(Global Summitry E-Journal, GSJ)은 KDI, 캐

나다의 Munk School, 멕시코 CIDE(Center for Research and Teaching in Economics) 등이 공동으로 G20, G8, APEC 등 주요 정상회의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최종 연구 결과물로 E-저널을 발간할 계획

- 향후 KDI와 공동협력기관은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의 협력사업 및 각국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G20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구를 선도하고자 함.

2

출장개요

① 출장목적

- ☐ KDI-Munk School-TSF-SIIS 공동주최 'G20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대와 블록(shifting coalitions and potential blocs for Asian and Pacific leadership in the G20)' 국제회의 참석
- ☐ 'G20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대와 블록' 연구를 위해 세계 유수 연구소와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각국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관련 연구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함.

② 출장지 및 기간

- ☐ 출장지: 중국 상해
- ☐ 기 간: 2012. 9. 13(목) ~ 16(일), 출·입국일 포함

③ 출장자 명단 : 총 2명

소속	성명	직위	출장기간
KDI	임원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장	9.13(목)~9.16(일)
	최정애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경제연구실 연구원	

3	출장일정
----------	-------------

□ 출장자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9.13 (목)	16:15	김포출발	KE2815
	17:15	상해 홍차오공항 도착	
	18:30~21:00	간담회	Ramada Plaza Caohejing
9.14 (금)	09:00~17:45	국제회의 Day 1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SIIS)
	18:00~20:00	SIIS 주최 만찬	
9.15 (토)	09:00~12:00	국제회의 Day 2	
	12:00-14:00	오찬	
9.16 (일)	15:30	상해 홍차오공항 출발	MU 9823
	18:20	김포도착	

□ 국제회의 프로그램

Day 1: September 14, 2012 (Friday)	
09:00-09:15	Opening Ceremony: Welcoming Remarks
09:15-10:30	세션1: The US-China Relationship – how have the Ups and Downs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past two year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G20?
10:30-10:45	Group Photo and Coffee Break
10:45-12:00	세션2: The Trilateral Summit Japan-ROK and Chin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Regional and Global Impacts
12:00-14:00	Lunch
14:00-15:30	세션3: The Impact of the Traditional G7 Powers – US, Canada, Japan and Europe
15:30-15:45	Coffee Break
15:45-17:15	세션4: The Impact of the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17:45-19:45	Dinner
Day 2: September 15, 2012 (Saturday)	
9:00-10:10	세션5: The Tree of Global Economic Governance Institutions – have the G20 and other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mutually strengthened enough and become effective?
10:10-10:30	Coffee Break
10:30-12:00	세션6: Perspectives from the G20 – Present and Future The Impact on the Agenda Outcomes of Caucuses and Blocs
12:00-14:00	Lunch

① G20 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대와 블록 국제회의

- 국제회의에서는 ‘G20내 아태지역 회원국의 리더십 확립을 위한 연대와 블록(shifting coalitions and potential blocs for Asian and Pacific leadership in the G20)’를 주제로 미-중 관계, 한-중-일 협력관계, 기존 G7 국가들과 BRICS 국가들의 영향력 등을 살펴본 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으로서 G20 및 기타 협력포럼의 효과성에 관해 논의

회의 주요내용 정리

* 회의 세부내용은 별첨된 Rappateurs Report 참조

□ 세션 1: 미-중 국제협력관계

- 미·중 외교관계는 국가간 협력관계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확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정치 및 경제관련 연구의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중국은 경제 분야에 관해 상당부문 협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정치와 안보 분야는 대립관계에 있으며, 신흥국 경제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현 시기에 갈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한편 중국은 자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여전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함.
- G20 체제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들로는, 두 국가 간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두 거대 국가가 G20라는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글로벌 경제, 통화 개혁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있음. 두 국가는 내부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해가야 함.
-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공정한 경쟁에 있어 ‘국가의 역할(공기업의 역할 포함)’이 논의의 핵심이었음.

□ 세션 2: 한-중-일 협력관계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 지역 협력 및 한-중-일 협력관계의 국제적 영향력 상승에 관해 논의,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함.
- 국제 이슈의 분절화(fragmentation)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국내 분절화 문제 역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점,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과 같은 기구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 ASEAN+3등 지역 협력체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현재 중국은 경제 및 안보환경과 관련해 TPP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TPP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것을 권고함.
- 동아시아 통합은 정책적인 협상 없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식량, 안보 등 주요 이슈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한-중-일 삼국 협력 및 아시아지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사회 이슈를 아우르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세션 3: 기존 G7체제의 영향력

- 기존 G7국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기존 G7체제의 정통 경제 강국들은 1975년부터 외교적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즉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실패하며 그 역할과 영향력이 차츰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 기존 협력국가 간 외교관계에 치중한 G7은 G20에 비해 네트워킹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향후 국제협력체제는 당분간 기존 G7, G8이 정치·안보를, G20이 경제 분야를 맡아 공존할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G20이 각 분야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임. 한편 국가 행동에 정치적 개념이나 가치관이 앞서는 경우,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세션 4: BRICS 국가들의 영향력

- BRICS 국가들의 경제력 상승과 기존 G7 국가들의 하락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G20 체제 내에서 BRICS 국가들은 유로존 논의에 있어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거대 신흥 경제로서 BRICS는 앞으로도 국제경제협력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한편 BRICS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임금상승, 사회 불평등, 불안정한 사회 안정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RICS는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의견을 대변하고, 내부적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세션 5, 6: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제도와 G20 전망

- G20 정상회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향후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G20이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를 이끌거나 다자간 협력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G20의 잔존여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음. 토론자들은 G20 체제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G20이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함.
- G20은 융통성 있는 회원국 체제, 비공식적인 네트워킹 채널 등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으며,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됨. G20은 글로벌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성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앞으로는 핵심 주제와 기타 주제들이 균형을 맞추어가야 함.
- 2012년 멕시코 로스까보스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주제였던 성장, 고용, 재정 관리 등의 이슈와 식량 안보, 지속적인 발전 등 최근 이슈,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 펀드 등 새로운 이슈들이 다루어짐. 토론자들은 2013년 러시아 G20 역시 이러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며 에너지 인프라, 공급과 수요, 유통의 안정화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함.
- 토론자들은 유로존 위기의 연장과 글로벌 리더십의 국가 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멕시코 정부의 성공적인 G20을 축하함과 동시에 향후 정상회담이 갖는 책임감에 대해 공감함.

② 국제 정상회의 저널 (Global Summitry Journal) 협의

- 국제 정상회의의 저널(Global Summitry Journal, 이하 GSJ)은 동료평가를 거쳐 전자저널 형태로 출간됨.
- GSJ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정치 및 정책의 조직과 실행에 대해 연구하는 학술지로, 저널 발간을 위해서는 역사, 법, 경제, 국제관계 분야의 저명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
- GSJ는 전자저널로서 인쇄물, 오디오, 비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발간됨. GSJ는 국제경제, 역사, 제도, 정치, 정책 등을 다루는 보고서를 제공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회담과 제도를 구축하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논의
 - G8/ G20 정상회담, 각종 각료급 회담, APEC, EAS, NATO, IMF, 세계은행, BCBS, FSB 등이 이에 해당
- G20 정상회의 전에 경제와 안보 영역을 아우르는 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미디어 센터 등에서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추진
- 세 개의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GSJ의 비전과 운영을 지원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자문위원회(Global Advisory Board, GAB)가 몇몇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전략 자문과 고문역할을 맡음. 나머지 두 축은 저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며, 두 번째 축은 편집 위원회, 세 번째 축은 교정 위원회로 구성됨.
 - * 편집위원회: Alan Alexandroff (Munk School, 국제관계), John Ikenberry (Princeton, 국제정치경제), Dan Drezner (Tufts, 국제관계), 임원혁 (KDI, 개발) 등을 영입
 - * 자문위원회: Paul Martin (전 캐나다 총리), 사공일 (전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참여
- 본 국제회의에서는 논의되는 토론주제 중 국제 정상회의의 저널에서 다루기 적합한 내용을 협의함.